

힘겨운 농민 현실을 담은 농업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6일,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오신 회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들의 농정공약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시던 회원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던 저는,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농정공약이 정작 농민들의 힘겨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농연은 한-미 FTA 비준 반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가신용회복기금 마련, 총리실 산하 농협개혁 3대 혁신위원회 구성, 식량자급률 상향설정 및 쌀 목표가격법제화, 농업회의소 건설 등 총 1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5년간 농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철학과 현실인식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 대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는 많은 부분에서 한농연의 요구사항과 일치했고, 기발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서 정책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농업의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세계 식량위기와 지구 온난화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야 하는데, 정부의 무분별한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민들은 마지막 숨통마저 막히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제라도 농업·농촌·농민문제를 단순한 돈의 가치로만 접근하는 정책 기초부터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농산물을 수입해 먹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 땅을 지키며 일구고 살아가는 350만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농업경영인 12만 회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 12월 6일에는 한농연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가 열립니다. 스무살 청년이 된 한농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농업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시대적 요구가 우리 한농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12월 6일 20주년 기념식과 연말 대의원총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